

## [태국, 2013년 3월 수산물]

###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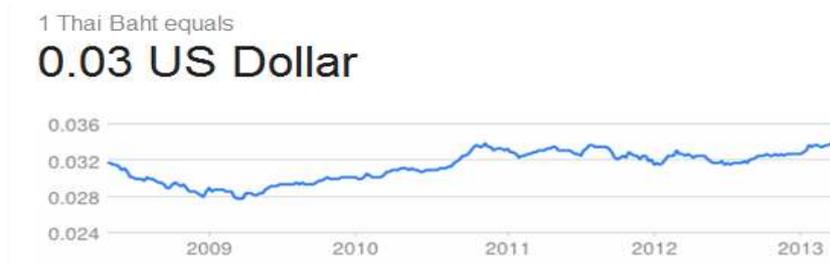
- ▶ CPF, 필리핀과 베트남에 새우 양식 시설 및 수산물 가공 시설과 기타시설에 투자, ASEAN 통합 시장 준비

태국의 최대 식품 및 농수산업 기업인 CPF는 수산물 양식 및 가축사육 시설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필리핀에 171 백만 달러USD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 필리핀 수입시장 및 시장의 성장성을 낙관하여 새우 및 수산물 양식 시설을 갖추기로 한 것임

또한 CPF는 이미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료, 농장, 가공식품 제조 시설과 CP Shop을 구축하였으며, 100 백만 USD를 추가 투자하여 하노이 근교에 사료 공장과 베트남 중부에 새우 양식장을 가동 및 구축할 계획임

- ▶ 태국 16년래 최고 바트화 강세와 세계 경제 침체로 쌀, 새우, 고무 등 수출 하락, 바트화 강세 한국 수출업체에는 호기

태국은 최고 주가 기록, GDP 상승 등 경기 호조에도 바트화 강세 등 기타 요인으로 올해 2월 수출은 5.8% 감소함. 쌀 -20.2%, 냉동 및 가공 새우 -22.2%, 고무 -11.8% 등 수출이 하락함. EU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4.31% 감소하였고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역시 4.29% 감소함. 2013년 4월 5일 기준 태국의 바트화는 0.03 USD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임



- ▶ 태국, 급격한 기후 변화와 댐 건설 등으로 내륙 지역의 수산물 생산에 악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와 태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댐 건설 등으로 메콩 강 및 내륙지역의 수산 환경과 수산물 생산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 예년보다 높아진 기온과 환경 파괴, 댐 건설 등으로 주로 중하층 국민들의 수산물 및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는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 Voice Of America가 보도함

##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 수산물 수입동향

- 태국의 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7.7% 증가한 579,402 천 달러 기록

(단위:천불)

구 분	2월 당월		2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287,809	+8.1%	579,402	+17.7%

자료 :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데이터 ([www.moc.go.th](http://www.moc.go.th))

\*주 : 수산물은 HS 코드 03, 16임

###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불)

품목	'12.1~2	'13. 1-2	증감%	1위		2위		3위		한국산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금액
참치	97,174	90,373	-7%	타이완	15,233	필리핀	12,402	바누아투	9,697	8,315
고등어	18,885	10,189	-56%	일본	5,271	노르웨이	2,119	중국	1,594	760
오징어	9,165	17,993	+96%	중국	6,240	페루	5,537	일본	2,182	259
굴 030710(소스 제외)	371	573	+54%	프랑스	270	호주	139	일본	66	0
김 건조김 (원초)	5,329	4,890	-8.2%	한국	3,433	중국	1,159	일본	153	3,433

자료 : 태국 관세청, 태국 상무부 무역 통계 자료 ([www.moc.go.th](http://www.moc.go.th))

### ▫ 고등어

- 한국산은 전년대비 48% 감소한 760 천 USD로 전체 4위 7.46%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산은 15% 증가하여 수입국 1위가 되었음. 중국산은 66% 감소하였으며 인도산이 주류를 이루던 저가 고등어 시장을 일본산이 대체하고 있는 중.

			
MAKRO 일본산 49-55 Baht (프로모션)	Makro 노르웨이산 (95 Baht/Kg)	Tops 노르웨이산 (445 B/ Kg)	Tops 노르웨이산 (297Baht/kg)

▫ 오징어

- 오징어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96% 증가하였으며 한국산은 전년도 기준 494%증가율을 보였음. 현지에서 오징어는 산지 표기 없이 판매되고 있으며 갑오징어, 쭈꾸미, 오징어, 알칼리 처리된 오징어, 작은 오징어 등이 판매되고 있음.

▫ 굴

- 신선 및 냉동 굴의 수입은 프랑스 산이 47% 이상의 점유율로 수입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입 금액 (54%)과 물량 (20%)도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보였음.

▫ 김

- 전년도 2월까지의 태국의 건조김 수입은 중국 (52% / 8.4 USD), 한국 (41% / 14.5 USD), 일본 (1.7% / 16.4 USD) 순 (점유율 % / Kg당 수입가 USD)
- 올해는 한국 (70% / 12 USD), 중국 (24% / 7.2 USD), 일본 (3% / 8 USD) 순으로 한국산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수입에 있어 안정적인 우위를 지속
- 전체 수입금액은 8.2% 감소하였으나 한국산은 단가의 소폭하락에도 불구하고 57%의 수입금액 증가

### 3. 타국산 (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고등어

- 2012년부터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등어는 노르웨이산이 프리미엄 시장을 일본산이 일반 및 저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많이 보이던 인도산 저가 고등어가 일본산을 대체되어 판매 중.

□ 오징어

- 중국산이 327% 수입금액 증가세를 보였으며, 공급가격이 낮은 페루 (U\$1.1/kg) 및 칠레 (U\$1.1/kg) 산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산은 지난해 U\$3.2/kg에서 U\$3.8 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상위 수입국 중 유일하게 3% 수입금액 감소함.

□ 굴

- 한국산 굴은 전년 동기 비교, 16톤 6만 5천 달러 수입되어 전체 수입의 17.4% 차지하였으나 올해 2월까지 수입실적 없음. 지난해 미국수출금지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굴은 태국에서는 이례적인 수입 증가 현상이 있었으나 미국 및 기타 아시아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정상 재개되면서 태국으로의 유입량은 다시 감소한 듯함
- 일본산 굴이 평균 수입단가의인 Kg당 U\$8.8 보다 높은 U\$13.2 로 지난해 보다 4배 이상 수입 증가. 중국산 굴은 지난해 2월까지 수입 물량 없었으나 올해 약 7톤을 Kg당 U\$4 가격으로 수입됨

□ 김

- 일본산은 지난해 kg당 U\$16에서 올해 U\$8.2로 수입가격 대폭 하락하였으며 물량이 3.3배, 금액 66%의 증가를 보임. 한국산의 독주에 자극받은 일본업체들이 일본산 김을 태국의 활발한 김 스낵 생산 및 소비시장에 기존가의 거의 절반에 공급하여 한국산 김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2위로 밀려난 중국산은 약 60% 수입 금액 감소

## 4. 동향 분석 [김]

### □ 일본산 김 수입가격 하락, 한국스타일 조미김도 한국산 김을 사용하여 태국에서 생산 중

- 김스낵의 유행을 만들어낸 선두주자 Taokenoi에 이어 일본식 식음료 업체 Oishi, Singha Beer 등 대표 식품 기업들이 속속 김스낵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한국산 김은 중국산 대비 월등한 품질과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태국의 김스낵 제조사가 선호하여 한국산 김 수입비중이 1위임
- 올해 2월까지 일본산 김은 전년대비 절반정도 하락한 가격으로 태국에 18.8톤 수입, 전년대비 물량 3.3배, 금액 1.6배 증가함
- 태국과 일본의 경제 및 정치 우호 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매우 견고하여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산 김 수입이 지속적인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태국의 김 스낵 제조사가 한국산 김을 선호하였던 이유는 안정된 물량 공급과 우수한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었고 품질과 가격에 대한 비교 대상은 중국산과 일본산이었음. 고가였던 일본산 김이 한국산으로 대체되자, 일본산 김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시작된 것으로 보임. 태국에서 유행되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김스낵 뿐 아니라 한국 스타일 조미김도 태국에서 생산되어 유통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 김 수입의 대부분이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김인데 이어 한국산 조미김의 인기를 인식한 김가공 업체들은 한국산 김을 사용하여 현지에서 한국식 조미구이 김 제품을 내놓고 있음



타케노이 한국식 조미김

###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과 김이 가격하락과 함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의 김수출 업체도 태국 시장 트렌드 및 수입가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태국 내수 시장 뿐 아니라 활발한 수출 활동을 겸하고 있는 태국 김 가공 업체들이 조만간 해외의 한국산 김제품 시장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임

“<저작권자 ©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